

구강암 조기 발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 교수 홍삼표

Q

근래에 오면서 구강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들을 치과의사가 조기발견하지 못하여 뒤늦게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 구강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자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구강암이라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Answer

좋은 질문입니다. 구강암은 간암이나 위암 등과는 달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위에 발생하는 암종이기 때문에 주의한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강암 환자의 2/3 가 상당히 진행된 (advanced)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강암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가?”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치과의사들이 구강암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치과의사 자신이 구강암에 걸려있는 상태인데도 모르고 지내다가 상당히 진행되어 상태가 악화된 후에 대학의 치과병원으로 내원하는 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자기가 보는 환자의 치이는 물론이려니와 구강점막도 잘 살펴보아야 하며, 구강점막에 발생한 병변을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조그만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구강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의 어떤 병소가 구강암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을까요? 우선은 구강점막의 색깔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백색으로 변화되어 있거나, 홍색 또는 붉은 색으로 변화되어 있는 병소는 흑시라도 구강의 전암병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색 병소나 홍색병소는 일종의 구강의 전암병소로 이미 구강암의 단계로 접어들었거나, 아니면 구강암으로 이행되기 직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점막의 색깔의 변화와 함께 종창이 되어있거나, 표면이 우둘투둘하게 불규칙해져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구강의 전암병소이거나 이미 구강암으로 진행된 환자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소염제와 같은 통상적인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경우도 구강암이거나 전암병소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를 보았거나 치료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생검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생검하기가 꺼림직 할 경우에는 환자를 대학의 치과병원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방법이 구강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길이며, 구강암의 조기발견은 암환자의 예후를 상당히 좋게하여 완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늦게 발견될 경우, 환자는 많은 조직을 희생시켜야 되며, 구강의 중요한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이 이상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구강점막의 색조의 변화가 있거나, 종창이 있거나, 통상적 치료에 잘 낫지 않거나, 점막 표면이 우둘투둘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를 빨리 구강병리 전문 교수에게 보이고 생검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강암에 잘 걸리는 사람은 상습 흡연자, 음주자, 40대 이후의 남성, 신장 이식을 받거나 다른 이유로 면역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이러한 환자를 볼 때도 구강암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겠습니다.